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 주일오전설교 | 그리스도의 뛰어난심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속(救贖)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심, 그의 탁월함을 열 가지로 증거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며(요 4:24)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지만(딤후 1:1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전통 본문)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보서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형상이셨으므로.” 히브리서 1:3, “이[아들]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형상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다. 낱으심과 창조는 비슷한 점이 있다. 창조도 낱으심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영혼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낱으심으로 표현된다(요 1:13; 약 1:18).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낱으심과 창조는 동일하지 않다. 창조는 질적 차이를 만든다. 창조주는 무한하시지만, 피조물은 유한하다. 그러나 낱으심은 동질적 존재를 낳는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두 분 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창조되신 것이 아니고 나신 것이다.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요한복음 1:1에서 ‘하나님’으로, 이사야 9:6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요한일서 5:20에서 ‘참 하나님’으로, 디도서 2:13에서 ‘크신 하나님’으로 불리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

하신 유한자(有限者)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 무한자(無限者)에게서 나신 무한자, 영원자에게서 나신 영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심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다. 그 아들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때는 사람의 시간 관념으로 상상할 수 없다. 그 일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 곧 영원 세계에서의 일이다.

[16절] 만물이 그에게[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엔 아우토) 창조되었다’는 원어는,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디 아우투) 창조되었다’는 원어도 이와 비슷하게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요한복음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2,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에 의해 혹은 그를 통해 창조된 세계는, 하늘에 있는 것들 곧 하늘과 천사들과 해와 달과 별들과, 땅에 있는 것들 곧 땅과 바다들과 호수들과 강들과 식물들, 새들, 물고기들, 동물들,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것은 보이는 물질세계 뿐 아니라, 또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즉 천사들의 세계도 포함한다.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라는 말은 천사들을 가리켰다고 보인다. 다니엘서는 세상 나라들의 위정자들 배후에 천사들이 있음을 증거하였다(단 10:13, 20, 21).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들의 창조의 목적이시다.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에이스 아우토)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라는 말은 만물 창조의 목적을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증거하셨다. 이사야 43: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

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의 창조 목적이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다섯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미가 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영원 전]에니라.”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이 본문에서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요한복음 8: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 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섯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불드시는 분이시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함께 서 있다’는 표현은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뜻이라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시다. 느헤미야 9:6,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신적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시다. 히브리서 1:3,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일곱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 이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머리와 몸은 생명적 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순종적 관계도 나타낸다. 그는 머리, 곧 우두머리, 주님, 통치자이시다.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대항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에게 절대순종하며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여덟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이시다. ‘근본’이라는 원어(아르케)는 ‘근원, 시작’이라는 뜻이다. 요한계시록 3:14는 그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라고 표현했다. ‘근본, 근원, 시작’이라는 헬라어는 고대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의 중요한 주제이었다. 그들은 존재의 세계 즉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다. 성경은 우주의 근원이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아홉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시다. 이것은 그가 최초로 영광스런 부활을 하셨음을 뜻한다. 그는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고전 15:20). 아직 아무도 그와 같이 영광스런 부활을 경험치 못했다. 아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나 나사로의 부활도 죽은 몸의 회생에 불과했지 그런 영광스런 부활은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광의 부활체를 입으셨다. 장차 그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빌 3:21).

열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 으뜸이 되다’는 원어는 ‘뛰어남, 탁월함을 가지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 세상에서 뛰어나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는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그의 이름을 높이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빌립보서 2:9-11,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임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보다 먼저 나셨고 먼저 계셨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불드시는 자이시다. 그는 모든 창조물의 목적이며 우주의 근원이시다. 우리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 가운데서 뛰어나신 주님이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의 영광을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비한 인격이시다. 그는 하나님이며 사람이시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며(요 1:1) 참 하나님이며(요일 5:20) 크신 하나님이다(딤후 2:13). 우리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특히 신적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오직 그를 의지해야 한다. 그것이 구원이다.

둘째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

송하며 오직 그를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 만물은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사야 43:7, 21,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후 5:15).

셋째로,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계 19:16).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모든 교훈에 절대복종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계 2:10).

**주일오후설교** 인 맞은 자들과 흰옷 입은 큰 무리

[계 7: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씀은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고 환난 시대에 대한 계시의 중간에 삽입된 위로의 말씀이다. 땅 네 모퉁이, 땅의 사방의 바람 등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일상적 표현이다. 바람은 환난을 가리킨다. 네 천사가 땅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것은 성도가 감당할 만한 것 이상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백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하셨다(마 24:20-22). 환난 기간의 통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2-3절]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둘은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환난은 중지될 것이다. 인을 친다는 것은 확증의 표시이다. 중요한 문서들에는 확인의 도장을 찍는다. 하나님의 인은 인 맞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증하는 것 즉 구원의 보증이다. 이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인치셨으므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10:28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

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救贖)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다(엡 1:13, 14). 또 그는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赤身)(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했다(롬 8:35, 38, 39).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4-8절]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 . .

이스라엘 12지파 중 단 지파가 빠졌고 그 대신 레위 지파가 들어 있다. 또 에브라임 지파 대신 요셉 지파의 이름이 들어 있다. 각 지파의 인 맞은 14만 4천명은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명을 가리키지 않고, 구속(救贖)받은 모든 성도의 완전 증만한 수를 상징한다고 본다. 12는 3과 4를 곱한 수로서 완전한 수를, 1,000은 증만한 수를 상징하며 12x12x1,000은 완전 증만한 수를 상징한다고 본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14만 4천명을 세상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근거는, ① 본문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며, ② 요한계시록 9:4의 황충 재앙에서 그 재앙이 이마에 인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만 임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③ 요한계시록 14:3에 보면, 14만 4천명은 ‘땅에서 구속(救贖)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구속받은 성도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약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29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했다고, 갈라디아서 6:16에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

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9-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앞에서 말한 14만 4천명과 동일한 무리라고 본다. 그들은 대환난 전에 인침을 받았고 대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은 교회의 세계성을 말한다. 교회 는 온 세계에 하나이며 그 구성원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충만함을 말하며, 이것이 14만 4천명으로 상징되었다고 본다. 흰옷은 성결과 의를 가리키며, 종려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할 것이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대환난을 무사히 통과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힘찬 찬송이 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이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가르친다. 로마서 9: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하거나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다. 요한복음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므로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이시다. 그는 구원의 길을 지시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11-12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모든 천사들은 성도들의 찬송에 화답하였다. 그들은 구원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일임을 노래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같은 죄인을 그의 기이한 방식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을 그의 능력으로 살리셨고 우리가 속죄 신앙을 지키고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항상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13-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을 통과해 나오는 흰옷 입은 성도들에 대한 환상은 대환난을 직면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 환난을 통과할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뿐이다(요일 5:4-5).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알지 못하는 자는 환난에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종교적 형식은 소유하였으나 참 종교의 실질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속죄 신앙을 가진 자마다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15-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대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천국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천막을 치셔서 더 이상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이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며 또 더위로 인한 해가 없도록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救贖)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특히 주의 재림 직전에 대환난을 통과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잘 감당하고 승리할 것이다. 이것은 대환난을 통과해야 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28,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5:4,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이겨 나가야 한다.